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수업 경험 및 실행 특성에 대한 탐색 -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earch for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Teacher of Joint Music Curriculum: A Case Study of Daejeon

최지은*

Jieun Choi 

초록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학습자 특성 및 수업 설계 방법, 장점과 개선점, 교육적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실행 특성을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시간적 부담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 전문성, 진로 지도 역량이 요구되었다. 수강 학생들은 주로 비전공학생들로, 전공 가능성을 탐색 중인 학생과 음악 활동을 취미를 가진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은 공교육 중심의 음악 심화 프로그램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학교 간 교류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 후에도 현재의 수준과 규모 내에서 운영될 것이라 예측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 내 수업 운영 확대, 지원센터 및 우수 거점시설 운영, 심화 강좌 개설 지원,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 체계 구축, 이동 거리를 고려한 권역 설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음악 선택과목, 음악 심화 프로그램, 학교 간 교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joint music curriculum of Daejeon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exploring teachers' perceptions of the curriculum, learner characteristics, instructional design methods, strengths and improvements of the joint curriculum,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The teachers expressed both satisfaction and time burden through the classes, and they were expected to demonstrate a high level of competency in curriculum restructuring,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guidance. The students enrolled in the course were primarily non-majors, consisting of thos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majoring in music and others who pursued music as a hobby. Although the joint curriculum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in-depth music program within public education, issues arose due to the method of inter-school exchange. It was predicted that the program would continue to operate at its current level and scale even afte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class operations within working hours, establishing support centers and excellent hub facilitie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dvanced courses, creating systems to enhance teacher professionalism, and designating regions considering travel distances.

Key words: joint music curriculum, high school credit system, music elective course, advanced music program, inter-school exchange

* Corresponding author, E-mail: andiemusikk@naver.com

Music Teacher, Daejeon Doan High School, 51 Wonshinheungnam-ro, Yuseong-gu, Daejeon, Korea

Received: 31 August 2024, Reviewed (Revised): 11 October (16 October) 2024, Accepted: 16 October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문제 상황들에 직면해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가운데 교육 분야에도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과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의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학생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해결하며, 책임감을 통해 변혁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OECD, 202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7)는 학생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정책의 추진 방향과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및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이수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수업과 평가, 학생 스스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구현, 학교와 학교 간 또는 학교와 지역 간으로 학교 교육의 경계를 확장하며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종합적으로 혁신하고자 제안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3).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에 우선적으로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의 학점제 도입 및 일반계고의 학점제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고교학점제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 다양한 과목이 개설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의 규모 내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에는 양적·질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과목 개설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한 후, 지역 내 또는 협의된 인접 학교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2012년부터 운영되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클러스터’ 정책이나(Ju, Kim, Lee, Lee & Park, 2017), 2013년부터 지정되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거점학교’의 사례와 같이(Hong, 2014), 거점학교의 개설 과목을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공유하는 방식은 점차 주목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2016년에 발표된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확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하며 구체화되었다. 2022년도부터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은 안정화되고 있으며, 2025학년도에 예정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이후에는 더욱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3).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음악과에서도 음악 교과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 고등학교의 음악 과목 개설 상황을 보면, 국·공립고의 음악 선택 과목 개설 수 평균은 1.94과목, 사립고는 1.90과목 등 학교당 두 과목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 단위 학교 내 학생의 음악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Jung, 2023). 이에 반해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일반 단위 학교에서 개설되는 보통과목에 더해 각 시도별로 ‘음악이론’, ‘시창·청음’, ‘공연 실습’ 등의 전문교과 I 과 ‘실용음악’, ‘반주법’, ‘작곡이론’과 같은 국가 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들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개설되고 있다(Kim, 2023).

이와 같이 공동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과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음악 선택과목 운영 현황을 분석한 김일영(Kim, 2023)의 연구 외에 찾을 수 없었으며 특히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현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학교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매년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는 상황과 그 중요성에 비하면, 음악과 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되는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학습자 특성 및 수업 설계 방법, 장점과 개선점, 교육적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실행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의 음악 교사 6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교사들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이 관찰한 학습자 특성과 그에 따른 수업 설계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이 가진 장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넷째,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공동교육과정의 이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은 공동교육과정을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함께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라 정의하였다. 학교 간 개설 과목을 공유하는 공동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단위학교 내에서 개설이 어려웠던 소인수 과목과 심화 과목의 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동교육과정 도입의 근거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라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1997).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빠짐없이 기술되어 강조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Ministry of Education, 2015; 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와 같이 다른 학교에서의 과목 이수를 인정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이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다.

공동교육과정은 각 시·도 교육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방법으로 운영되나(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공통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운영 주체에 따라 단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대학, 지역사회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Lim & Woo, 2022).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다시 ‘수업 개방 범위’, ‘참여 학교 유형’,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분류된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4). 이 중 수업 운영 방법을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분류하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전광역시외의 경우 소인수 선택 및 심화 교과목을 개설하는 교과영역의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진로선택 프로젝트 강좌인 비교과 영역의 '진로선택형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세 가지의 공동교육과정 유형 모두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진로선택형 공동교육과정'은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진로선택형 공동교육과정'에서 음악과 강좌를 개설한 음악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한다.

2.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김일영(Kim, 2023)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음악 선택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하며, 2020년도와 2021년도 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된 음악 선택과목 수가 2020년 대비 2021년에 47.05% 증가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설 빈도를 기준으로 '음악 전공 실기', '음악이론', '시창·청음', '공연 실습', '음악사', '합주', '음악연주', '합창', '음악감상과 비평' 순으로 선택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고시 외 과목으로 '실용음악', '반주법', '작곡이론'이 개설되었음을 정리하였다.

2024학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개설된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강좌 유형, 강좌명, 개설된 강좌수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Daejeon Office of Education, 2024b). 1, 2학기를 합산하여 개설된 강좌를 정리하면 총 12개의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가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영역에 해당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이론'이 개설되었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는 '음악 전공 실기', '음악이론', '음악 연주'가 개설되었다. 대전광역시의 특별한 공동교육과정인 진로 프로젝트 중심의 '진로선택형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실용음악 보컬', '성악 및 뮤지컬 가창', '피아노 연주', '밴드 합주'가 개설되었다. 여러 유형으로 개설된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 중 '음악 전공 실기', '음악이론', '실용음악 보컬', '성악 및 뮤지컬 가창'은 학습자의 수요가 많아 여러 개의 강좌를 중복하여 개설하거나 학기마다 반복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4학년도 대전광역시의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개설 강좌를 바탕으로 운영 현황을 분석해보면, 실기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실기 강좌의 특성상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강좌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음악 전공 실기'와 '음악이론' 과목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비교과 영역인 '진로선택형 공동교육과정'에서는 실용음악 관련 강좌에 많은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2024 joint music curriculum lectures in Daejeon

Type	Course title(The number of courses opened)	Total
Subject area-online type	Music theory(1)	1
Subject area-offline type	Major practical(3), Music theory(1), Music performance(1)	5
Extracurricular area-career choice type	Practical music vocals(2), Vocal music and musical singing(2), Piano performance(1), Band ensemble(1)	6
Total		12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최근 3년 이내에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6명의 음악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 전체를 확인하였다. 해당 학기 대전광역시에는 5개의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가 개설되었고, 강좌를 운영 중인 교사의 수는 한 명의 교사가 두 개의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다. 운영 교사의 수가 적어 4명의 운영 교사 전체를 목적표집하였다. 이후, 이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경험이 있는 음악 교사 2명을 추천받아, 총 6명의 음악 교사를 최종 연구참여자로 확정하였다<Table 2>.

<Table 2> Participant information

Participant	Gender	Teaching career	Degree	Instruction semester	Title of offered courses
Group A	A	M	Over 20 years	Doctor	2021-1,2 2022-1,2 2023-1,2 Music history, performance practice, sight singing & ear training, ensemble
	B	M	Over 20 years	Master	2021-1,2 2022-1 Practical music theory, practical music composition
	C	F	10 to 20 years	Master	2021-1,2 Music & computer

<Table 2> Continued

Participant		Gender	Teaching career	Degree	Instruction Semester	Title of Offered Courses
Group B	D	F	10 to 20 years	Master	2023-1,2	Practical sight singing
	E	F	5 to 10 years	Bachelor	2022-1,2 2023-1,2	Practical music piano Accompaniment techniques Practical music theory and ensemble
	F	F	5 to 10 years	Bachelor	2023-1,2	Vocal music and musical singing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초점 집단 면담(FGI)을 활용하여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수집하였다. FGI는 특정 영역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 그룹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생성한다. 일반적인 FGI는 3개 이상의 그룹을 형성할 것을 권장하나 이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없고, 적은 수의 그룹일지라도 포화에 이르는 면담 결과와 삼각검증법을 통해 면담의 확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David, 1997).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이 활용되기도 한다(Krueger & Casey, 2009).

본 연구의 경우 참여자들이 주제에 관한 높은 수준의 참여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전문적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소규모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의 면담 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A그룹 3인과 B그룹 3인으로 그룹을 나누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학습자 특성에 대한 질문에서 포화에 이르는 답변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교육과정의 장점 및 개선점,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 탐색과 앞으로의 예측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FGI를 위한 질문지는 김남희와 김동심(Kim & Kim, 2022)의 전문교과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연구 문제와 음악과 교과의 특성에 맞추어 질문을 추가하고 재구조화하였다.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공동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는 음악교사 및 지도교수와 함께 면담지의 내용을 총 3회에 걸쳐 사전 점검하였으며, 질문에 사용된 용어의 명확한 정의, 연구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질문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주제를 포함한 10개의 질문을 개발하였다.

① 교사의 인식

- 질문1.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중 운영 경험이 있는 강좌는 무엇이며 이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질문2.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대한 처우와 보상,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질문3. 음악과 공동교육과정과 일반적인 학교 음악수업, 음악과 방과후학교 또는 사교육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학습자 분석 및 수업 설계

- 질문4.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주된 요구는 무엇입니까?
- 질문5.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과 음악적 수준은 어떠한가?
- 질문6.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에서 가르치신 과목의 내용 영역은 어떻게 설계하셨고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③ 장점과 개선점

- 질문7.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8.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의 단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④ 교육적 의미

- 질문9.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10.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연구참여자들의 일정에 따라 면담은 2023년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2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A그룹은 모두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2회의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B그룹은 오프라인 면담으로 2회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자들은 활발히 의견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총 면담 시간은 224분이며 면담 1회당 평균 소요시간은 56분이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녹취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면담이 진행되기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유선전화와 사전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이 안내된 설명문을 통해 연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내용은 전부 녹음되어 전사된 정보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만 저장 후 암호화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3. 자료 분석

면담자료는 Saldana(2009)의 부호화 방법에 따라 1차주기 코딩과 2차주기 코딩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먼저 1차주기 코딩 단계에서는 전사된 자료를 직접 한 줄씩 읽어나가며 줄 단위(line-by-line) 코딩을 실행하였다. 여러 번 텍스트를 읽어나가며 생성한 코드는 주요 텍스트와 코드의 연결 및 코드의 목록화를 지원하는 ‘Taguett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가 텍스트의 맥락을 잘 담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재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또한 생성된 코드들을 누적하여 코드북을 생성하고 코딩 과정 전반에 활용하였다. 새롭게 전사된 데이터는 기존에 생성된 코드와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유사한 맥락의 텍스트에 같은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1차 코딩을 통해 141개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2차주기 코딩 단계에서는 1차 코딩으로 생성된 141개의 코드와 관련 자료의 총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코드를 재분석하고 코드 간의 관계를 재조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5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Table 3>. 생성된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을 추출하였으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진술을 질문 목록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Guba & Lincoln(1981)의 진실성에 따른 연구 결과의 신뢰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신빙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고자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신뢰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1인, 동료 2인과 코딩 과정 및 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해석의 적절성을 논의하며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에게 분석 결과를 전달하여 해석과정에서 연구자가 놓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다. 셋째, 코딩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며 코드와 범주를 구체화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의 정밀성을 확보하였다.

<Table 3> Results of data analysis

Interview topics		Generated categories (The number of related codes)	N categories	N codes
Major topics	Subtopics			
Teacher perception	Motivation for operation	Internal factors(6), External factors(6), Barriers to continued participation(1)	3	13
	Rewards and operational challenges	Absence of rewards other than allowances(1), Time burden(2)	2	3

<Table 3> Continued

Interview topics		Generated categories (The number of related codes)	N categories	N codes
Major topics	Subtopics			
	Differences from other programs	Differences from regular classes(3), Differences between after-school programs and private tutoring(3)	2	6
Learner analysis and instructional design	Learner needs	Enhancement of basic musical competencies(4), Interest in musical activities themselves(5), Exploration of music major possibilities(3)	3	12
	Learner characteristics and levels	Non-major student focus(4), Wide disparity in musical abilities(7)	2	11
	Content design and operation methods	Consideration of individual learner levels and needs(14), Promotion of interaction with students from other schools(5), Enhanced curriculum restructuring(9)	3	28
Strengths and areas for improvement	Strengths	Expansion of student experiences centered on public education(12), Opportunities for determining major(3)	2	15
	Weaknesses and areas for improvement	Lack of support for i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7), Limited course operation(4),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8), Issues arising from inter-school exchange(9)	4	28
Educational significance	Roles and significance	Support programs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3), Active student choice and embracing diversity(4)	2	7
	Operational forecast	Reduction or maintenance of operational scale(7), Need to response to change(11)	2	18
Total			25	141

IV. 연구결과

1. 음악과 교사들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1) 음악과 교사들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동기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운영 동기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지속참여 방해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교사들은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 교육에 대한 열정, 교수역량 성장에 대한 기대, 음악 교사로서의 의미 탐색을 위한 수업 운영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반 수업에서 경험한 전문교과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한 교사도 있었다.

음악 전공하는 아이들과 이런 경험(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했던 것들을 지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지도하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음악 교사로서의 의미를 계속 찾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아닐까. (A교사, 내적 요인)

교사들은 외부 요인에 의해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거나 학교의 우수한 연습 시설을 활용하고자 강좌를 개설한 사례가 파악되었다.

저는 1대1 개인 레슨을 해주고 싶은데 (다른 곳에서는) 그 사이에 아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학교에 갖춰져 있는) 개인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다가 레슨을 받으러 오는 방식이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설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게 됐어요. (F교사, 외적 요인)

또한, 과거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강좌를 운영하지 않는 교사들로부터 프로그램의 지속 참여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분석되었다. 강좌 운영에 대한 방해요인으로는 학생 이동이 어려운 외곽 지역 학교로 전보하게 되면서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 체력적 소진으로 인한 부담감, 수강 인원 미달로 인한 개설 취소의 사례가 파악되었다.

2)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처우 및 어려움

면담 내용은 ‘수당 외 보상의 부재’, ‘시간적 부담’의 범주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강좌 당 주어지는 별도의 수당 이외에 다른 보상은 없다고 전했다. 만일 한정적인 교육 재원 속에서 현재 유일하게 주어지는 보상인 운영 수당이 축소된다면 공동교육과정은 지금과 같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운영 과정의 어려움은 명확하였다. 교사들은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였다. 교사들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수업과 업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담당하게 되어 시간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의 연구에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재미있게 수업을 했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밤에 남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힘들어서 그만뒀지 않나... (후략) (B교사, 시간적 부담)

3) 다른 음악 학습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일반적인 학교 음악 수업, 선택형 방과후 학교 강좌, 음악 사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 수업과의 차이’,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과의 차이’의 범주를 생성하였다. 운영 교사는 공동교육과정 강좌가 소인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다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수업에 비해 음악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파악이 수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공동교육과정의 개설 기준 최소 인원은 실기 중심 강좌의 경우 8명으로 지정되어 있어(Daejeon Office of Education, 2024a), 일반 음악 수업의 인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음악 분야에 대한 흥미가 강한 학생들이 모여있어 일반 음악 수업보다 수업 참여에 대한 능동성과 몰입도가 매우 높다는 특성도 있었다. 짧은 수업 기간 동안 블록타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심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학교 음악 수업과 비교되는 지점이었다.

가장 큰 거는 인원수가 일단 다르니까.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음악성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있으면 사실 특출한 아이들만 보이잖아요. 잘하는 아이 몇 명 잘 못하는 아이 몇 명 이렇게만 보이고 평균적인 아이들이 어쩔지는 보이지가 않는데. (E교사, 일반 수업과의 차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F교사, 일반 수업과의 차이)

선택형 방과후 학교, 음악 사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다양한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공동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학습 비용의 미발생, 진로 탐색 역량 강화에 맞추어진 학습 활동, 학습 평가의 존재가 파악되었다.

사교육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는데 굉장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방과후 학교도 본인들이 일단 돈을 내야 되고요. 그런데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되잖아요. (D교사,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과의 차이)

(방과후 학교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과 공동교육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평가예요. 성취 수준에 대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이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만족도 조사만 하고 끝나잖아요. (A교사,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과의 차이)

2.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학습자 특성 및 수업 설계 방법

1)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들의 요구

운영 교사들을 통해 파악된 수강 학생들의 요구는 ‘음악 기초 역량 향상’, ‘음악 활동 자체에 관한 흥미’, ‘음악 전공 가능성 탐색’으로 요약되었다. 교사들은 전공을 고민 중인 학생들이 음악 전공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초 역량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보컬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시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음악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왔고. (D교사, 음악 기초 역량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음악 심화 활동에 관한 흥미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한 기록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스펙”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과 달리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음악과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관련 “스펙을 쌓는 것”보다 음악적 활동과 경험 자체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강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부 특기사항에 써주는 것에 관심들이 거의 없고요. 영화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와 영화 장면에 음악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대해서 저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하면서... (중략) 배우러 와서 배우고 가는 데에 좀 더 의미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B교사, 음악 활동 자체에 관한 흥미)

또한 음악 전공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히 실용음악 전공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영 교사들은 강좌 개설 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강좌명과 교수학습계획에 실용음악 분야의 학습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과 수준

수강 학생의 학습자 특성과 수준에 대한 면담 내용은 ‘비전공학생 중심’, ‘음악 능력의 큰 편차’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운영 교사들은 음악 전공을 결정한 학생보다 비전공학생들의 공동교육과정 수강 비율이 더 높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IV-2-1)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요구 중 ‘음악 심화 활동에 관한 흥미’ 및 ‘음악 전공 가능성 탐색’과 연결할 수 있었다.

사실 음악 전공을 하려고 온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그 와중에 음악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음악을 좀 만들어볼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온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C교사, 비전공학생 중심)

또한, 교사들은 수강 학생들의 음악 능력에 큰 편차가 있다고 진술했다. 사전 선발 절차 없이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강좌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의 강좌 내에서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가진 학생과 음악적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운영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음표 이름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제가 이게 무슨 음표일까? 질문하면 4분 음표를 8분 음표라고 하고, 애는 몇 박자일까? 질문하면 8박자인가?하고 대부분 악보를 구성하는 음표 이름대로 박자를 말하고.. 아이들이 헷갈려 해요. (D교사, 음악 능력의 큰 편차)

3)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내용 설계 및 수업 운영 방법

면담 내용은 ‘개별 학습자 수준 및 요구 고려’, ‘타교 학생과의 교류 활성화’, ‘강화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분류되었다. 참여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이 가진 소인수 과목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고 있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과 1:1로 개인 교수를 진행하였으며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습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인원이 워낙 적어서 집중적으로 3시간, 블록 타임으로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개별 지도가 가능했었던 게 가장 좋았긴 했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실습,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별화할 수 있었어요. (후략) (C교사, 개별 학습자 수준 및 요구 고려)

수업 과정에서의 피드백은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 간에도 실행되었다. 교사들은 학생 멘토링 그룹, 전문적인 상호평가, 함께 공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타고 학생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같은 관심사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되어, 실력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경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우리 학교 안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동교육과정에 오면 더 잘하는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교류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수강료가 얼마다, 레슨 받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예요. (A교사, 타고 학생과의 교류 활성화)

수업을 이끄는 교사들에게는 일반 음악 수업을 뛰어넘는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설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사 개인이 가진 특기와 융합적 역량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의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수업은 정규 수업에서 거의 할 수 없는 수업이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잖아요. 이것을 한번 저만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F교사, 강화된 교육과정 재구성)

3.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장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

1)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장점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장점에 대한 교사들과의 면담 내용은 ‘공교육 중심 학생 경험의 폭 확대’와 ‘전공 여부 결정의 기회’로 요약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의 개설 강화를 통해 예술적 시야를 넓히고, 전문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융합 역량 탐색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그동안 음악 관련 사교육에서 주로 담당하던

영역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음악 경험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에서 심화된 음악 활동을 경험하며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갖는 학생들의 사례와 전공을 고민하던 학생이 자신의 음악적 역량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통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함께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두 가지 사례 모두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음악을 전공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확신을 갖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고 (음악 전공과가 있는) 여기 학교로 다음 해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E교사, 전공 여부 결정의 기회)

다른 학교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그전에는 내가 음악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해야겠다. 그런 결정들을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 않을까. (B교사, 전공 여부 결정의 기회)

2)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단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단점 및 개선점은 ‘수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부재’, ‘한정적 수업 운영’, ‘행정 업무 과다’, ‘학교 간 교류로 인한 문제’로 요약되었다. 공동교육과정 강좌가 대부분 일과 시간 이외에 진행되므로, 수업 중 발생하는 시설 및 전산의 돌발적 문제를 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더해, 개인연습실이나 고성능 컴퓨터를 보유하는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현재 강좌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음악시설을 가진 학교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제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일반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학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예러나는 상황도 상당히 많았고. (중략) 원격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학생이 집에 있는 노트북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줌으로 원격 접속을 해서 컴퓨터 기사처럼 다 이렇게 찾아주고. (C교사, 수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부재)

이 학교는 음악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실도 많고 음악 활동을 위한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학교에 있는 음악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다 한 공간에 가둬놓고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교사, 수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부재)

수업 시간이 한 학기 내 짧은 기간으로 한정된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해당 강좌에 높은 만족도를 표한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더 심화된 학습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도, 상위 단계의 강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수준의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워 한 학기의 과정을 다음 학기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행정 업무 과다의 문제는 공동교육과정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 담당자에게 부과되는 많은 공문 처리의 문제, 여러 학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업무의 복잡성 등이 파악되었다. 또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학생 희망이 대부분 수용되는 공동교육과정의 구조에 따라 수강신청 후 쉽게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이 소진되고 있었다.

공동으로 하는데 학생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다 무너져버리는 거잖아요. 수업에 대한 책임감. (수강 중도 포기 학생들에 대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졸업할 때까지 못 듣는다는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B교사, 행정 업무 과다)

학교 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파악되었다. 교사들은 원거리 학교에서 열리는 강좌를 신청한 학생들이 이동에 대한 부담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늦은 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하교 과정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교사 및 수강 학생 간에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학교마다 다른 학사일정으로 인한 수업 스케줄 문제였다. 서로 다른 학교의 체험학습 등 각종 행사로 인한 인정결석, 정기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수기준 범위 내 일부 시수를 결석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여 학생들이 모두 모여야 진행될 수 있는 합주, 공연 연습, 프로젝트 등 협력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 전달되었다.

고등학교들이 다 시험 날짜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같이 모이는 수업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어쩔 때는 진짜 한 달 뒤에 만나는 이런 상황들이(중략)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 바짝 연습하고 또 시험 기간 되면 또 못 모이고 하다보니 각 학교들이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좀 몰아서 보는 것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E교사, 학교 간 교류로 인한 문제)

아이들이 서로 협업을 진행하기에는 일주일 아니면 2-3주일 만에 만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하루 3시간 안에 끝낼 작업 활동으로만 수업을 끝냈어요. (C교사, 학교 간 교류로 인한 문제)

4.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

1)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역할과 의미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파악된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역할과 의미는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학생의 능동적 선택과 다양성 포용’으로 요약되었다.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지원하는데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공동교육과정이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진로와 연계된 강좌 수업을 활성화하여, 고교학점제에서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진로 개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의미 있는 음악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이 있을 때 중간에 서 있는 게 공동교육과정의 음악이 아닐까. (중략)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 남는 건 공동교육과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교사,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또한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동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 주로 예술고에서 가르쳐왔던 음악 전문 교과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악의 세분화된 영역을 심화하여 다룰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점차 단절되고 있는 음악 활동의 생활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

2)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측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예측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운영 규모의 축소 또는 유지’,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라는 두 가지 범주가 생성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타 교과의 공동교육과정과 달리,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은 더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수준과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여전한 예술 교과의 위축, 폭넓은 경험보다는 진로·진학과 연계하여 특정한 교과 강좌 수강에 집중하는 공동교육과정 환경을 들 수 있었다.

음악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학교에서 예술 동아리라든지 제가 꾸리고 있었던 게 전부 다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사물놀이든 아니면 무슨 앙상블 동아

리이든 운영하던 것들이 너무 사라져서요. 공동교육과정을 하면서 음악 교사의 수는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사실 저는 궁금해요. (C교사, 운영 규모의 축소 또는 유지)

참여자들은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을 필두로 교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세분화된 음악 강좌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음악 교사 간의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화 강좌의 개설이 활발해질수록 외부 강사들이 초빙되는 사례도 많아질 것이라 보았다.

저희 선생님들마다의 전공을 조금 더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특색화시켜서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어도 (대전광역시의) 진로연계형 공동교육과정처럼 특화된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들을 정착시키면 음악 교사가 공동교육과정 안에서 살아남는다 그럴까요? 우리 교과와 갈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기존에 하던대로 1시간 음악 이론 수업하고 1시간은 합창 수업하고 이렇게 (분절된) 1시간짜리 수업으로는 정말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B교사,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음악교사 6명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사례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학습자 특성 및 수업 설계 방법, 장점과 개선점,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고교학점제의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택 과목 개설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음악 전공 가능성 탐색과 음악 심화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 음악 수업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은 수업에서 보람과 만족감을 느낌과 동시에, 상당한 시간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을 선호하는 학생들과 함께 깊이 있는 음악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의 특성은 교사들에게 학문적 충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느끼는 시간적 부담은 공동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방해요인이 되었다. 공동교육과정이 주로 근무 시간 이후에 진행되고, 수업 연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심화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업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운영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대한 특별 수당이 제공되

고 있었으나, 그 외 추가적인 지원이나 처우 개선은 미흡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더라도, 선뜻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의 수업 시간을 근무 시간 내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필수 이수 학점이 줄어들면서 여유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간을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을 것이다. 근무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수업 시수 분배 과정에서 공동교육과정의 시수를 가산하여 수업 연구 부담을 줄이거나, 성과 평가에서 다교과 지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연구원의 주도하에 강좌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센터는 행정 업무의 분담, 수업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기술적 지원, 수업 기자재 및 교구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운영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주로 비전공학생들이며, 전공 가능성을 탐색 중인 학생과 음악 활동을 취미로 가진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하였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적은 수강 비중이 관찰되었는데, 이미 실기 분야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어 공동교육과정에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수강 기록을 통한 ‘스펙 쌓기’보다 순수한 음악적 경험의 확장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은, 음악과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가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내 예술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음악 심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음악 수준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좌 내 학생들을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1:1 개인교수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학생들의 수준을 분류할 수 있는 기초 강좌와 이를 확장하는 심화 강좌와의 연계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요구하는 사항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모든 강좌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일회성 강좌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으로, 여전히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학습자 간의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입문 단계와 심화 단계의 수준별 강좌 개설에 대한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심화 과정의 수강 허용 인원 중 일부는 같은 강좌의 입문 단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제공하거나,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학습자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강좌 간 학습 연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 전문성, 진로 지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수 역량이 요구되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다양한 상황과 요구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에게는 더욱 복합적인 교수 역량이 필요해졌다(Bae & Lee, 2023; Kim & Kim, 2022; Lee, Yoon & Yun, 2022).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하며, 대부분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인 교사 연수에 대한 지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 시·도 간 음악 교사 네트워크 형성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이에 따른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로 다교과 지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연구 시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명의 교사가 한 두 과목을 맡았을 때와 같은 관행적 방법으로 수업 시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교원 수 감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Ministry of Education, 2023),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교과 수업 현황과 교직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 수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사 정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Choi, 2023).

넷째, 공동교육과정은 공교육 중심의 음악 심화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학교 간 교류 방식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학교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학교의 학생이 모이기 때문에, 개별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수강 학생 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점 학교를 향한 학생 이동이 수반되었다. 이에 따른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 이로 인한 중도 탈락, 이동 중의 안전 문제, 학사 일정의 불일치로 수업 일정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는 이전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Bae & Lee, 2023; Kim, 202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Lee, 2017; Park, 2021). 특히, 서로 다른 학사 일정으로 인해 결석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는 합주, 공연 연습, 프로젝트 등 협력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 강좌 수강을 권장하여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의 이동 거리 최소화 and 학생 수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Kim, 2021). 이 경우 통학 버스와 같이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이동 수단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설정된 권역 내 고등학교 간 학사 일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학사 일정 내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사 일정 불일치로 인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준과 규모를 유지하며 운영될 것이라 예측되었다.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의 도입의 기반을 조성하며 (Park, 2021),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Kim, 2021). 위와 같은 예상을 기반으로 할 때,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이 현행 수준의 규모를 유지될 것이라는 음악 교사들의 예측은 이례적이다. 이는 음악 교과가 학생들의 공동교육과정 과목 선택에서 후순위로 고려되는 점을 반영한다. 그 이유로는 공동교육과정에서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다른 과목의 선택이 우선되고 있으며, 미흡한 학교 음악 교육 시설과 기자재로 인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의 인성교육적 역할을 강조하여 음악 교과의 영향력을 넓히고 음악 교육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와 대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의 인성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Lee, 2021). 이에 반해 협력적 음악 활동은 학생 간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생들 간의 관계와 자기 조절 효능감을 개선할 수 있다(Lee & Shin, 2024). 이러한 음악 교과의 특별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음악 교육의 범위와 영향력을 더욱 넓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교육과정의 심미적 음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시설을 갖춘 학교나 시설을 거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위 학교의 음악 교육 시설은 개인 및 단체 연습을 위한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수준 높은 기자재 구비에도 한계가 있어 심화된 음악 활동을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거점 시설을 선정·운영하고, 수업 교사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시설 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 대전광역시 음악 교사들의 수업 경험 및 실행 과정에서의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강 학생의 특성,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프로그램의 장점과 문제점, 전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대전광역시의 운영사례로 한정되었고, 교사의 관점에 의존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다른 지역의 음악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 수강 학생의 경험에 대한 사례 분석, 강좌 유형별 학습자 특성 탐색의 연구를 제안한다.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과목 선택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통해 예술 교육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

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과 공동교육과정의 개선점을 인식하고, 향후 공동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e, H. S., & Lee, J. Y. (2023). Examining the current state and key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shared education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9(2), 351-380.
- Choi, Y. J. (2023).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changes in teaching of economics: FGI for social studies teachers in pilot school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62(3), 5-23.
- Daejeon Office of Education (2024a). *Neodunadu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joint curriculum*. Deajeon: Author.
- _____ (2024b). *Neodunadu online registration for joint curriculum*. Daejeon High School Credit System Support Center. Retrieved August 29, 2024, from https://djhcredit.com/hsccredit/sugang/normal_home.php
- David, L. M. (1997). *Planning focus groups: Focus group kit*. Illinois: Shakespeare Book House.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New Jersey: Jossey-Bass.
- Hong, W. P. (2014).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urriculum core schools: A new approach to diversifying high school curriculum in Kor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1), 53-75.
- Ju, J. J., Kim, W. J., Lee, H. M., Lee, D. B., & Park, S. J. (2017).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grade-free credit system in high schools*. Policy Research by Gyeonggi-do Institute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2017-16). Suwon: Gyeonggi-do Institute of Education.
- Jung, E. J. (2023).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high school music elective course offerings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1), 107-130.

- Kim, I. Y. (2023). Analytical research of music elective course operation status for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1), 1-27.
- Kim, N. H., & Kim, D. S. (2022). A study on the teaching experience of online joint curriculum by specialized subject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8(2), 445-469.
- Kim, S. Y. (2021). Analysis of general high school locations for opening common curriculum courses based o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cusing on Seou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48-159.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Exploring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joint curriculu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Jincheon: Author.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4). Inter-school joint curriculum. *High School Credit System Website*. Retrieved August 29, 2024, from <https://www.hscredit.kr/>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Lee, K. W. (2017). *Exploratory study on the long-term direc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in response 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Implementation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learner-centered high school credit syste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Lee, Y. B., & Shin, J. H. (2024). The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orchestra activities on cooperation and musical self-effica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9(1), 157-179.
- Lee, Y. H. (2021). The effects of roles of teachers and parents on academic achievement: Mediating effects of character.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34(2), 81-104.
- Lee, Y. H., Yoon, J. H., & Yun, J. H. (2022). Exploration of the perceptions of difficulties experienced by high school teacher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role cont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2), 447-463.
- Lim, J. H., & Woo, S. Y. (2022). A study on exploring the operational direction of out-of-school education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 high school curriculum: Based on experts' Delphi survey.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35(3), 51-74.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2007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General guidelines*.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3).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97).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General guidelines.* Seoul: Author.

_____ (2015). *2015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General guidelines.* Seoul: Author.

_____ (2017). Direction for implement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operational plan for research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72593&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s=moe&m=020402&opType=N>

_____ (2019). Priority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51 Meister high schools in the 2020 academic year.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7830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_____ (2021). Announcement of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o realize inclusive and growth-oriented high school education by 2025.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35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_____ (2022). *2022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General guidelines.* Sejong: Author.

_____ (2023). Direction for implement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operational plan for research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78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2009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General guidelines.* Seoul: Author.

OECD (2021). *What students learn matters.* France: OECD.

Park, M. H. (2021).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of joint curriculum: Focusing on the high schools in Daegu.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4(4), 31-58.

Saldan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